

10월 20일 목요일 열린강연

<어.찌.다. 사회혁신가/ Louis Pulford> 속기록

한선경: Louis Pulford 는 최대 글로벌 사회혁신 커뮤니티의 디렉터 이다. 어떻게 해서 디렉터까지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생생하게 루이즈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Young foundation 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 들어보려 한다.

루이즈

사회혁신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사회혁신을 하는 것이 매우 행복하다. 항상 어렸을 때는 내가 아닌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나이 든 사람처럼 보이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리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행운이라 생각한다. 여러분의 커리어를 정할 때 내 경험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정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부터 시작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이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 이었다. 사회혁신 이라는 단어조차도 사전에 찍히지 않는 단어 였다. 어린 시기에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한다. 어렸을 때 특출 나게 잘 하는 것은 없었다. 아니 지금도 그렇다. 많은 것을 그저 ok 수준으로 한다.

제 어머니가 찾은 것이 국제학의 아이비 프로그램 이라는 것을 찾았다. 그것은 독일, 프랑스 에서도 인정이 되는 시스템 이다.

대학에서 뭘 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디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은 했었다. 내가 정한 과목은 사회학과 정책 이었다. 아주 유능한 학생도 아니었다. 쇼핑, 남자친구, 술도 많이 마셨다. 자원봉사나 협회에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다른 나라에 가서 교환학생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학과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내 친구들도 다 갔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설득 하였다. 학과에서 한 가지 옵션을 주었다. 다음학기에 6 개월 동안 홍콩에 갈 기회를 준다고. 홍콩에 갔는데 그 전에는 아시아에 간 적이 없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을 만났다. 홍콩에서 시험을 보는데 내 모국어로 시험을 봤기에 아주 잘 봤다. 내 학부를 마쳤다. 부모님은 나에게 어떠한 압력도 가하지 않았고, 나는 고민했다. 은행 쪽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친구들이 금융 쪽으로 가니까 거길 가야 할지. 사회정책은 3 년제 어서 그 곳을 갔다. 그 당시에 석사를 할까도 생각 했으나 석사는 너무 비싸서 내가 지불 할 수 없었다. 동아시아 학을 공부했고, 중국어도 배웠다. 중국에 있는 영국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다. 컨설팅 회사를 다닐 때는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사무실에 정장을 입고 갔는데 사람들은

다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6 개월을 베이징에서 살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 은행에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에 또 지원을 했으나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난 수학을 잘 못 했기 때문이다.

연구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변호사가 된 친구도 있었다. 나는 그런 것을 다 못 했지만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카페나 레스토랑 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첫 날 갔는데 리셉션에서 새로운 인턴이냐고 물었다. 너는 여기 잘 못 온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 함. 알고 보니 사무실을 잘 못 찾아간 것.

나는 준비를 잘 못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 날 들어간 사무실 에서는 미팅이 이루어 지고 있었다. 전세계의 새로운 파트너 들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 것이 SIX 였다.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 SIX 의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사회 정책 쪽과 관련된 조직들도 만날 수 있었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일 년 동안 다양한 업무를 했다. 이벤트 어시스턴트 뿐만 아니라 다루기 힘든 여성분의 코디네이터, 아주 지루한 행정적인 일. 업무 자체는 너무 싫었지만 영 파운데이션 이라는 조직을 너무나 좋아했고. 조그만 프로젝트들이 많이 일어나니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던 중 팀원이 떠났다. 조직을 코디네이팅 하고 좋은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것을 배웠다. 또한 아주 끈질긴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SIX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중요했다. 담당자가 일 년 뒤에 떠났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는 담당자 보다 더 낮은 포지션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 하였다.. 네트워크가 잘 되고 프로젝트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영 파운데이션은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사회혁신 센터가 아닌가 싶다.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란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성장시키는 곳이다. 그 것을 성장 시켜서 독립 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 센터의 대표는 사회혁신 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다.

제프 라는 사람은 이 사회혁신 분야에 대한 생각을 계속 발전 시키는 사람이다. 이 분야에 대해 글도 많이 쓰고 영역 자체가 좀 더 철저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제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회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철저 해져야 하는. 홈리스, 청소년 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보건 문제가 좀 더 나은 프로세스를 가질 수 없을까 하는 고민들을 했다. 2008 년도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을 둘러 보았는데 세계에 세 군데 정도가 있었다. 네덜란드, 한국의 희망제작소. 또한 SIX 를 만든 것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설득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서울시의 시장도 마찬가지. 박시장은 SIX 이벤트에 계속 참여를 하였다. SIX 는 0 으로 시작했다가 300~400 명이 함께 하게 되었죠. 5~6000 명 정도 멤버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영 파운데이션 에서 독립하여 기관등록을 하게 되었다. 나 또한 인턴으로 시작하여 책임을 가지는 디렉터가 되었다.

이제는 멤버의 수를 세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와 어떻게 긴밀하게 관계를 이어 가나가 더 중요하다. 가끔은 내 육체와 정신이 분리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자문 위원 역할을 내가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한국에서 변화가 아주 빨리 일어났고 의도하지 않게 부득이하게 빨리 일어난 경우가 있다. 얼마 전에 제프와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몇 살인지/ 얼마나 경험을 하였는지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냥 SIX 디렉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 하라고 했다. 가면 증후군이 심리학적 이론인데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하는. 균형이 중요 할 것 같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겸손을 가져야 한다. 아직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 일을 영원히 하진 않을 것이다. 은행, 기업에 다시 들어가려 할까? 하지만 윤리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일 하는 방식 에서의 가치도 나에게 너무 중요 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절대 관료적인 구조에 가서 일하지 못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 권위적인 모습을 보면 CEO 사무실로 항의를 하러 갈 것 같다. 그럼 나는 쫓겨 날 것 같다. 나는 위험 하고 아주 아주 바쁜 일을 좋아한다. 맨 처음에 사회혁신 잠재력 점수를 이야기 했는데 나는 5 점 이라고 이야기 했다. 내가 정말 창의적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결과가 끝나지 않은 상태 에서도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도 아주 편안하게 느껴진다.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5 년 후에 내가 가질 직업은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인생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막상 하다 보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질문

인턴에서 디렉터가 바로 되는 건 아니다. 어시스턴트도 하면서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인데, 루이즈는 프로페셔널 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

루이즈

내가 프로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는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알았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 하는 것보다 내가 인정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전문가, 프로처럼 보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하지 않는 다는 걸 알았다.

나는 아주 좋은 멘토를 가졌다. 유럽 의회에서 발표를 할 계기가 있었는데, 멘토와 함께 가게 되었다. 점점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재정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디에고 라는 멘토가 나의 의견을 물어봐 주고 확인해 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누가 이 이야기를 유용하게 들을까 하는 생각도 중요하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열린 네트워크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누구와 만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SIX ASIA 의 스텝이 6 명 이라고 했는데, 이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돌아 갈 수 있는지. 재단과 커뮤니티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커뮤니티 성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루이즈

SIX의 멤버들도 초과 근무를 많이 한다. 전세계 곳곳에 계시는 이사회 멤버들이 큰 옹호자 역할을 한다. 타이트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한다.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한다. SIX 네트워크는 아주 타이트 하지만 열려 있다. 커뮤니티 자체는 아주 끈끈하게 엮여있다. 많은 사람들이 SIX와 함께 하면 떠나지 않는다. 아쇼카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같은 혁신적인 마인드 셋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동료 안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갖는 것을 같이 만드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